



오늘의 세계는 산업사회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대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사회는 오늘의 산업사회에서 제기되고 반성된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체적으로 발전의 단계를 한 차원 드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상호보완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구가족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과학기술문화를 창출하여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엑스포는 선진국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왔으나, 개발도상국으로서 한국이 최초로 개최하게 됨으로써 엑스포 역사상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제도 '새로운 도약에의 길'로 정하여 다수의 개도국들은 그들의 독자적인 전통기술과 문화를 제시하고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공해, 환경오염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도전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전에의 가능성을 시사해 줄 것이며,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은 산업사회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게도 새로운 발전에의 길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인류 모두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의 동과 서의 만남이 오늘날 국제정세의 변화를 가져 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듯이, 1993년 엑스포에서 이루어질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 변화된 동구권의 참가 등은 인류가 공존, 공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탐구해 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엑스포'93이 이 행사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КОММУНИКАЦИЙ ЮЖНОЙ КОРЕИ,  
ГЛАВНЫЙ ОРГАНИЗАТОР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ОК  
ИЗОБРЕТЕНИЙ В СТРАНЕ, ГОСПОДИН <sup>О</sup> ПРОВЕЛ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СО ШКОНДИНЫМ И ПРЕДЛОЖИЛ ЧЕТЫРЕ ВАРИАНТ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 ОСТАТЬ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2. СОЗДА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УЮ КОМПАНИЮ
3. ВРЕМЕННО ПОРАБОТАТЬ В НИИ
4.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ЕДПРИЯТИЕ ПО ВЫПУСКУ МОТОР-КОЛЕС ДЛЯ ДЕТСКИХ ИНВАЛИДНЫХ КОЛЯСОК И ТЕЛЕЖЕК ДЛЯ ГОЛЬФА